

왕의 , 한국 외교장관 조현과 회담

9월 17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북경에서 한국 외교장관 조현과 회담을 가졌다.

왕의는 조현 외교장관의 첫 중국 방문을 환영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랑국 원수는 전화통화를 가지고 중한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공감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랑측은 수교 초심을 지키고 이웃으로서 우호적으로 지내는 방향을 확고히 하며 상호 혜택과 공동 승리의 목표를 견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략적 파트너가 되여야 한다고 말했다.

왕의는 또 중한 랑국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라고 강조하며 현재 일방적인 강압 태세가 널리 퍼진 상황에서 랑국은 함께 무역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국제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왕의는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관리 구상은 글로벌 관리를 강화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국의 제안과 지혜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

리고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역사를 명기하고 선렬들을 추모하며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를 수호함으로써 국제질서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조현은 이재명 대통령과 습근평 주석은 성공적으로 전화통화를 나누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미래 발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랑국 관계가 개선되는 추세를 소중히 여기며 중국과 함께 랑국 원수간의 중요한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기회로 고위층 교류를 더 긴밀히 진행하여 경제무역, 인문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한중 및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랑측은 올해와 명년에 개최될 APEC 정상회의에 대해 상호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 신화넷

《남경사진관》도교서 상영

중일 인사들 : 역사를 거울삼아야



17일, 도교에서 열린 영화 《남경사진관》 상영회에서 도교도 중일우호협회 부리사장 이노우에 마사노리가 관眾 소감을 말하고 있다.

《남경사진관》 상영회가 17일 주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렸다. 중일 각계인사 150여명이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소감을 나누었다.

그들은 랑국 국민은 역사를 거울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화넷

서울시, 첫 ‘수상패스’ 정식 운행



9월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관광객들.

/ 신화넷

9월 15일, 한국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첫 ‘수상패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한강패스’로 불리는 이 ‘수상패스’는 총길이 28.9킬로미터의 로선을 달린다. 단방향 완주 소요 시간은 127분이며 잠실, 여의도, 압구정 등 7개 부두를 연결한다. 1회 승차 요금은 한화로 3,000원(인민페로 약 15.4원)이며 전용 교통카드 사용 시 무제한 승차가 가능하다.

운행 초기에는 하루 14회 운행하며 10월 10일부터는 하루 30회로 증가하고 12월말까지 하루 48회로 점차 확충할 계획이다.

리용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시는 관련 부두에 패스 로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공용 자전거도 배치했다.

/ 신화넷

우리 나라

민생 혜택과 소비 촉진 결합한 정책 복합화 추진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문화관광부,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들은 9월 1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서비스 소비 확대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 나라 서비스 소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 소비는 이미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관건적인 분야로 부상했다.

이번 정책조치는 19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기했다. 상무부 부부장 성추평은 민생 혜택은 소비 촉진의 기초이자 전제이며 소비 촉진은 민생 혜택을 실현하는 중요한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조치는 처음으로 소비 신업태, 신모델, 신정경 시범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상업과 관광, 문화, 체육, 건강이 융합된 새로운 소비 정경을 창조하며 새로운 소비 선도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상무부 봉사무역및상업무역봉사사

시장 공덕군은 다음 단계에서 경쟁적 심사 방식을 통해 전국적으로 인구 기반이 크고 견인 작용이 강하며 발전 잠재력이 좋은 약 50개의 소비 신업태·신정경 시범도시를 선정해 량질의 소비 공급을 증가하고 다양한 소비 정경을 혁신 및 풍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 소비 측면에서 정책조치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 분야의 정품 창작을 지원하고 인기 문화박물관, 관광지 등의 개방 시간을 연장하며 예약 방식을 최적화해 대중의 량질 서비스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비스업의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측면에서 정책조치는 인터넷, 문화 등 분야의 질서있는 개방을 추진하고 통신, 의료, 교육 등 분야의 개방 시범사업을 확대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서비스 소비 분야를 〈외국인 투자 장려 산업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중양기업, 중요한 핵심기술 집중 공략



9월 17일 오전,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14.5’ 고품질 완성 계획 주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관계자는 몇년간의 노력을 통해 중양기업의 혁신 력량이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소개했다. 연구개발 비용이 3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고 투자 강도가 2.6%에서 2.8%로 높아졌다. 모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공략에 참여하여 97개의 원천 기술 발원지를 구축하고 23개의 혁신 연합체를 구성함으로써 체계적인 배치, 협력적 공략, 중점 돌파의 강대한 합력을 형성했다.

중양기업의 과학기술혁신은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다. 집적회로, 공업 모션, 공업 소프트웨어 등 분야의 일련의 병목 현상의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돌파하였다. 상아 6호, 드림호, ‘분투자’호, 심지 1호 등 여러 ‘대국 중무기’의 승선 소식이 잇달아 전해지고 있다.

C919 대형 려객기와 국산 대형 크루즈선이 지속적으로 ‘중국제조’의 명함을 빛내고 있다. 9.3 열병식에서 일련의 새로운 령역과 신질 전투력이 당당히 등장하여 민족의 자신감과 자강정신, 기개, 잠재력을 크게 고취시켰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 광주해양지질조사국 과학탐사부두에 정박해있는, 우리 나라 최초 자체 설계·건설 대양 시추선 드림호.

/ 신화넷

윤봉길의사 손녀, 상해 전시관 방문

윤봉길의사의 손녀 윤주경은 10일 상해 홍구 로신공원내 윤봉길의사 생애 전시관이 있는 매원을 찾았다. 그는 “할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오래동안 다양한 지원을 해준 중국 정부에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여섯해 만에 다시 이곳을 찾은 윤주경은 전시관을 살펴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전시판과 현판이 새로 바뀌었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상해의 변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앞으로 상해의 발전 전망이 매우 밝아보인다.”

1994년 4월 27일, 홍구는 윤봉길 의사의 호인 ‘매원’을 따라 로신공원 안에 한국식 정자 매장을 세우고 매화를 심었다. 같은 해 7월에는 매원 담장을 완성하고 첫 조경 작업을 진행했다. 1998년에는 매정 앞에 ‘윤봉길 의거 현장’ 기념비를 세웠다.

2004년에는 한국측의 지원으로 매정에 윤봉길의사 생애 전시관이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70여점의 력사사진, 모형 그리고 쓰여진 기자가 찍은 영상자료 등이 전시되어있다. 2005년부터 매년 4월 29일 매원에

서는 매년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홍구국제교류센터에서 주최하고 한국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현재 매원 윤봉길의사 생애 전시관은 한국 사람들이 항일영웅의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잡았다.

이번 방문에서 윤주경은 할아버지

등상 앞에 남긴 중한 랑국 언어로 된 많은 메시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할아버지의 의거를 기억하고 있음을 깊이 느꼈다.

2004년부터 이곳에서 일하며 방문객들에게 한국어로 ‘홍구공원 의거’를 설명해온 관리자 정락은 “지금 은 해마다 약 2만명의 한국 관광객들이 매원을 찾아 윤봉길의사를 기

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경은 이렇게 말했다. “역사는 잊혀져서는 안된다. 우리가 여러 기념관을 세우는 것은 바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과거가 우리 앞길을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할아버지를 기리는 이 ‘매원’이 이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상징이 되길 바란다.”

/ 신화넷



朝夕奔梦

友誠敬愛法公平自和文民富
善信業國治正等由諧明主強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任明兆作